

파이낸셜 뉴스



▲ 7월 15일 파이낸셜뉴스 13면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1사1인 채용운동'으로 상반기에만 178개사가 총 840명을 채용하는 등 고용증대 효과에 한뫼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디지털타임스



▲ 7월 22일 디지털타임스 23면

고성장기업 CEO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침체된 기업가정신과 벤처창업의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벤처기업 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음을 보도한 특집기사

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에 46억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올해 상반기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업체(2361개, 146억원)를 지원한 데 이어, 새로 1007개 기업을 선정해 4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이번 3차사업에는 1539개 업체에서 60억원을 예산을 신청해 그 중 1007개 업체를 선정해 4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올해 마지막 4차사업은 오는 9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10월초 평가를 거쳐 약 1000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업체 사무소 또는 공장 이 위치한 소재지 관할 지방중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코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청, 단체수의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관련법을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7월 22일 밝혔다. 법 개정시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경쟁 제한적 성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을 쇠퇴시키고 우수 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을 막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바뀌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현행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도입해 대기업제품, 외국제품과의 경쟁을 배제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 지적재산권 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 적극 지원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기보캐피탈과 함께 100억원을 출자해 '특허투자조합 2호'를 결성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이 조합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된 특허기술이 사업화자금 부족으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등록 또는 출원 중인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한 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미만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투자대상이다.

특허청은 "2002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전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허기술 사업화의 최대 애로사항이 '사업자금 부족'인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투자조합 1호를 결성해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허투자조합 1·2호의 사업실적과 반응을 보고 향후 추가적인 조합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